

7월17일 목말씀

환경이 자꾸 어려우면 10개 하던 것 5개 만 해도 됩니다. 5개도 안 하면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. 넓은 길은 차 가지고 다니고 좁은 길은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전거로도 못가면 걸어서라도 가야 됩니다,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됩니다.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. 나도 이제 다른 곳으로 안 가고 한국에 있을 거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

사람이 자기가 타고난 복은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는 것입니다. 가지고 가봤자 맞지 않습니다. 자기의 신발이 다른 사람에게 안 맞듯이 맞지 않습니다.

어머니 성품은 내성 성품, 아버지는 외성 성품입니다. 나는 아버지성품 어머니 성품 다 받고 살았습니다. 나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. 이것은 아버지 성품입니다. 그리고 순진한 여자 성품도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 성품입니다.

지도자들이 나를 자꾸 따라다니면 뭘 또 자꾸 하게 됩니다. 그러니 그렇게 자꾸 따라다녀야 합니다. 계속 따라 다녀야 합니다. 안 그러면 자존심 깎인다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. 지도자들도 그렇게 의식을 많이 합니다.

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병이 납니다. 그래서 나도 쉬었고 여기 와서 몸이 더 좋아졌습니다. 그전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. 과로해서 몇 번을 쓰러지고 죽다 살아나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여기 와서 너무 좋아졌습니다. 힘든 피로를 70번이나 거쳤습니다.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.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. 아프면 쉬고 건강해지면 또 다시 뛰고 달리는 것입니다. 한국 사람들은 4-5년만 몸이 부서지게 됩니다. 각 나라들은 누가 잡아당기는 사람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시험 들었다 지쳤다 소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. 선생님 믿으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라고 하십시오. 이제 내가 왔으니 어디 안 갈 것입니다. 애들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. 애들 관리해 보니까 내 심정 느끼겠지요? 애들 관리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. 우리어머니가 나 기를 때 그렇게 지독한 마음으로 기르니까 그래도 섭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. 낙심하면 안 됩니다.

울산지역 좀 잘 하십시오. 울산 내가 아침 마다 이름 꼭 넣어서 불러주고 있습니다. 70-80개 어느 때는 깊이 들어가면 교회 이름까지 넣고 하나하나 불러줍니다.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. 200명 300명만 하면 안 됩니다. 나처럼 전 나라를 하나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 마을에 나랑 같이 목회 떠난 사람들 나보고 맨날 늦었다고 한 사람들은 목회 벌써 끝났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들의 교인 수는 내 교회 수보다도 적습니다. 이렇게 크게 해야 됩니다. 100리 가려면 200리 간다고 생각하며 뛰어야 100리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.

100리 간다고 뛰면 40리 밖에 못가는 것입니다. 그게 사상, 사고입니다. 큰 사람들은 누가 막으면 마치 강물을 막으면 댐이 되듯, 큰 사람을 막으면 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큰 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흘러가는 것입니다. 하나님 말씀대로 크게 됩니다. 큰 사람이 되어봐야 합니다. 외국 사람들이 이제 몰려 올 것입니다. 40-50개국에서 올 것입니다. 인재들이 앞으로 선생 보러 많이 올 것입니다.

마산대나 창원대 그쪽으로 엘리트들 짹 밀어붙이고 하십시오. 퍽박.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. 잔잔한 물결에는 수영하기 더 힘듭니다. 파도타면 더 빨리 간다고 생각하십시오. 파도가 있어야 출렁출렁 넘어가는 것입니다. 전체에게 하자고 하면서 과감하게 밀어붙이십시오. 캠퍼스가 밀어붙여야 합니다. 중고등부(인원) 보다는 작습니다. 캠퍼스 무엇하고 있습니까? 밀어붙여 보십시오.

나는 한사람가지고 강의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. 내가 몇 번이나 강의를 한지 아십니까? 2만 번이나 했습니다. 그렇게 악착같이 전하는 것입니다. 나는 하루에 교회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. 1000명을 만들려면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. 지금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. 옛날에 교회는 지교회로 재미있게 만들어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많아졌습니다. 몇 백 개는 만들어야 됩니다. 자꾸 그런 것을 만들어서 키워야 됩니다. 센세이션을 일으켜야 합니다.